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거의 전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피지 않는 쪽은 좀더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나 버스나 비행기나 전철 등의 장소에서는 전혀 담배를 피우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화장실이나 옥상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레스토랑 등에서는 나누어져있는 곳도 있고, 피우는 것이 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피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술집은 흡연자들의 천국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는 경우를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때에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싫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담배를 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26년 정도 살고 있지만 담배없이도 행복합니다. 지금부터도 절대(전연)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으로 죽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가족도 역시 폐암에 걸릴 확률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베란다나 정원에서 피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그렇고, 이야기는 다르지만, 요즘 청소년의 흡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거의 대부분 피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도)한클래스의 반의 반, 즉 25퍼센트가 피우고 있다는 조사보고가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지금보다 더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은 아직 자신의 사고가 바르게 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